

해설편

Day 1

1. Sure. Take as many as you want.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

해설) 자, 처음 문제는 그냥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넣어놨어~ 해설할 것도 없네 ㅎㅎ

2. No problem. We'll change your seat to the aisle side.

문제없어요. 통로 쪽으로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해설) 이 선택지는 'aisle'이라는 단어 때문에 골랐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거든. '통로 쪽'이라는 뜻이야. 주로, 교통수단과 관련된 주제에 등장하지. 또 중요한 게 발음인데 's'가 묵음이라 [아이얼]로 발음 돼. 강세는 큰 글자에 있어. 그럼 'to the aisle side'를 읽어볼래? [투'디'아이얼 싸인]이 될 거야. 'the'를 [더]가 아닌 [디]라고 읽어야 한단 것도 잊지 말고~

3. That's too bad. The submission date has passed.

안됐네요. 제출 날짜가 지났어요.

해설) 'submission date'는 '제출 날짜'라는 뜻으로 비슷한 단어로는 deadline이 있어. 또 'b'와 'm'이 만나서 b의 발음이 약해져서 b가 거의 안 들려. 그래서 [썸미션] 이라고 들려.

4. Sure. They'll make a back-up file just in case.

당연하죠. 그들은 만약을 대비해 백업파일을 만들 거예요.

해설) 남학생 같은 경우 'back-up'이라는 단어를 잘 알 텐데 여학생들은 생소할 수 있어. 백업은 컴퓨터 파일 같은 것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봐 따로 저장을 해두는 거야. 원래 파일이 날아가도 백업파일이 있으면 복원이 가능한 거지. 또, 'just in case'은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뜻이야. 꼭 외워둬! 왜냐구? Just in case.

5. Thanks! I'll go there now before they're sold out.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매진되기 전에 제가 지금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해설) 'be sold out'은 그래도 많이들 아는 단어일 거야. sell은 '팔다'이니 be sold는 '팔리다'. 여기다 out이 합쳐지니 '다 팔려서 없다' 즉, '매진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또한, sold의 'd'와 out의 'o'가 연음돼서 [솔드 아웃]이 아닌 [솔 다웃]이라고 발음 돼.

6. I'm going to hire you as my speechwriter.

나는 너를 나의 연설문 작성자로 고용할 거야.

해설) 노파심에 고른 선택지야. 'I am going to'를 '난 ~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은 없겠지? 물론 'I am going to school.'은 '학교에 가다(다니다)'라는 뜻이겠지만 'I am going to' 동사가 나오면 'I will 동사'라고 해석해야 해. will 보다는 더 확정적인 계획을 말할 때 쓰여.

7. You're the right person to give me advice.

너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적임자야.

해설) 이 선택지를 보니 다른 표현이 생각나서 골랐어. 선택지는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 없지? 그럼 방금 말한 다른 표현을 알아보자.

He is the last person to lie to me.

이 문장의 사전적 해석은 '그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거짓말 할 사람이다.'야. 무슨 뜻일까?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순간 다음 문제를 알리는 '땡동~' 소리가 나올 거야.

이 표현은 **부정의 표현**이야. 이런 뉘앙스지.

이 세상 사람이 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거짓말 할 사람이다.

즉, **나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란 거지. 꼭 알아둬.

8. I wouldn't make a single change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한 군데도 바꾸지 않을 거야.

해설) 'If I were you'는 통재로 외워. '내가 너라면'이라는 뜻이야. 근데 왜 I 다음에 was가 아니라 were 이냐구? 가정법 때문이야. 잘 모른다면 그냥 넘어가. 지금 시점에 이걸 가르칠 순 없거든.

9. You should've written the speech on your own.

너는 그 연설문을 너 스스로 썼어야 했어.

해설)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 (근데 안 했다.)'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했다.)'

라는 뜻이야.

on your own은 '너 스스로'라는 뜻이구.

10. I think it's better to soften the speech a little bit.

내 생각에 연설문을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해설) soften the speech의 사전적 해석은 '연설을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이야. 어떤 의미일까? '어조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걱정적일 때 좀 더 부드럽게 만들다.' 라는 뜻이야. 사전적 의미로만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으니 속뜻을 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해. 물론 이 자료에서도 여러 번 할 예정이구.

오늘 하루치 하느라 수고했어~ 그냥 맘 편히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어땠어?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 않았지? 복잡한 내용은 빼고 핵심만 짚어봤어~ 앞으로 6일 동안도 이렇게 열심히 하자! 알겠지? ㅎㅎ

Day 2

11. They'll be done in an hour.

그것은 한 시간 내에 끝날 거야.

해설) 천천히 발음하면 [데이 윌 비 던 인 언 아월]이겠지만 실제 말할 때는 [델비 더니년아 윌]로 발음 돼. 선택지를 보면서 5번만 읽고 넘어가.

12. Sure. Let's encourage more students to sign up.

물론이죠..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게 해요.

해설) encourage A to B는 'A가 B하도록 장려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너희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장려하다'라는 어휘를 쓰니?ㅋㅋ 그냥 make라고 생각하고 '하게 만들자'라고 해석하면 돼.

13. Terrific! You'll be the best judge ever.

아주 좋아요! 당신은 역대 최고의 심사위원이 될 거예요.

해설) 국어와 영어에서의 표현차이를 모르면 이 문장이 '미래의 직업'으로서의 judge를 말한다고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될 거야'는 '적합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거야. 대화를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상황은 대회의 심사위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설정했어.

M: 다운아, 너네 이번 대회에 심사위원 구하고 있다며?

W: 응, 맞아. 한 명이 부족하거든. 관심 있어?

M: 해볼까 생각 중이야. 작년에도 했었거든.

W: Terrific! You'll be the best judge ever.

14. That's okay. I was happy to help out at the nursing home.

괜찮아. 나는 양로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

해설) 만약 너희가 이 선택지를 봤는데 'nursing home'이라는 단어를 몰라. 어떻게 알래? 당황할 거야? 그러지마. 앞에 'the'가 딱 하니 있잖아. 분명 스크립트에 먼저 언급 됐을 거야. 그러니 어떤 장소 A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15. You can help me run my own blog.

당신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해설) 뽑아놓고 해설을 쓰려니 뭐 별거 없네.. 쉬어가는 타임~ ㅎㅎ run이 '달리다' 외에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어.

16. Yes. It's very time-consuming, but it's worth it.

그래. 그건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럴 가치는 있지.

해설) time(시간) + consume(소비하다) = time-consuming(시간이 많이드는) 이야. 설명 끝! worth는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worth ~ing도 '~할 가치가 있는'이라고 따로 외우라고들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worth 명사'라고 외워두면 '~ing'도 명사니깐 포함되잖아. worth doing it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17. I didn't get my newspaper today, either.

나도 오늘 신문을 받지 못했어.

해설) 'either'는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too'와 같아. either은 부정문, too는 긍정문에 쓰인다는 점만 다르지. either와 too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야해. 따라서, '신문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답이겠구나!' 생각하면 돼.

18. Just thinking of it makes me happy.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

해설) 'Just thinking of it'을 한 덩어리의 주어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해. 다른 건 뭐 딱히 설명할 게 없네.

19. Teamwork will win the competition.

해설) 사전적 해석은 '팀워크가 그 경기에서 승리할 거야.'이겠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 '팀워크'라는 게 경기에 참가했는데 이기게 될 거란 말일까? 아니지. '팀워크가 팀을 그 경기에서 이기게 해줄 거다.'라는 뜻이지.

20. Good. I hate working on weekends.

좋아요. 전 주말에 일하는 거 싫어해요.

해설) 여기서는 문장 앞에 나오는 말(책에서는 '앞네모'라고 불러)인 Good의 역할을 알아볼게. 아래의 두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워.

M: 너 주말에 일하는 거 좋아해?

W: I hate working on weekends.

W: 현정아, 이번 주말에 알바 하는데 같이 할래?

W: I hate working on weekends.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Good.만 추가해 볼게.

M: 너 주말에 일하는 거 좋아해?

W: Good. I hate working on weekends.

완전 언어장애인 거 인정하는 부분?

M: 현정아, 이번 주말에 알바 하는데 같이 할래?

W: Good. I hate working on weekends.

ㅇㅈ?

ㅇㅇ, ㅇㅈ.

단지 'Good.'만 추가했는데도 이상한 이유는 그만큼 'Good.'이 상황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주말에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화자가 'Good.'이라 한 것은 그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 고려해서 대화를 만들어봤어.

M: 현정아, 너 주말에 특별히 하는 거 있어?

W: 아니. 별 계획 없어. 왜?

M: 승연이가 주말근무로 바꾸고 싶다는데 어때?

W: Good. I hate working on weekends.

앞네모의 중요성을 모르는 학생들은 앞의 두 어색한 대화를 보고도 아무런 어색함도 못 느낄 수 있어. 이 자료에서도 앞네모의 중요성을 몇 번 더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열심히 하자! 오늘도 수고했어!

Day 3

21. No problem. I'll pick up your daughter.

문제없어요. 제가 당신 딸을 차로 데려 올게요.

해설) 이 선택지의 앞네모는 'No, Problem.'이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의 말이 부탁하는 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보나마나 자기 딸을 데려와 달라는 거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스크립트를 들으면 문제를 틀리는 일이 없어져.

22. Okay, let me take a look.

좋아요, 제가 한 번 볼게요.

해설) 무언가를 가져왔으니 한 번 보겠다고 한 거겠지? 발음은 [렛 미 테이크 어 룩]이 아니라 [렘미 테이컬룩]이야. 선택지를 보고 5번 소리내서 읽고 넘어가도록!

23. The more knowledge, the better the interview.

더 많이 알수록, 면접도 더 잘하게 될 거야.

해설)이 구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문이야.

The 비교급 S+V, the 비교급 S+V

더비더비 구문이라고도 부르지. 해석은 '~할수록 ~하다'라고 해.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S+V가 없지? S+V는 생략이 가능해. 그럴 땐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돼. 굳이 써보면

The more knowledge you have, the better the interview you can do.

라고 쓸 수 있겠지만 말이 길어지면서 임팩트가 좀 떨어져. By the way(그나저나),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을까? 친구에게 면접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상황에서 쓸 수 있겠지.

24. The company buys your creativity, not your image.

회사는 너의 이미지가 아니라 너의 창의력을 사는 거야.

해설) 이 선택지도 사전적 의미 보다는 속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회사가 돈을 지불하고 이미지가 아닌 창의력을 산다는 게 사전적인 의미이고, 겉모습이 아닌 창의력을 보고 직원을 고용한다는 게 속뜻이야. 'buy'를 잘 의역해야 해.

25. Interviewing is no more than expressing yourself.

면접은 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야.

해설) **A is no more than B**

그대로 직역하면 'A는 B 이상이 아니다.'가 되겠지만 잘 안 와 닿지?

'A는 B일 뿐이다.'라고 의역을 하면 잘 와 닿을 거야. 해석에도 의역이 돼있어.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쓸까? 친구가 면접을 보러가는 데 너무 긴장한 상황에 쓰면 적당하겠지. 아래와 같이 말이야.

M: 이제 면접까지 한 시간 남았어. 너무 떨려.

W: 면접을 너무 큰 일이라 생각해서 그래. 그 생각을 버려.

M: 그게 무슨 말이야?

W: Interviewing is no more than expressing yourself.

26. I'll write it down for you then.

그럼 제가 대신 적어줄게요.

해설) write down은 write랑 같다고 보면 돼. 우리가 '글을 쓰다'를 '글을 써내려가다'라고 표현하듯이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 선택지에서 또 중요한 점은 'then'이 가지는 미묘한 뉘앙스야.

M: Can you write it down for me? (나 대신 이거 좀 적어줄 수 있어?)

W: I'll write it down for you. (너 대신 써줄게.)

위의 대화는 아주 매끄러운 대화야. 그런데 여기에 'then'을 추가해 볼게.

M: Can you write it down for me? (나 대신 그거 좀 적어줄 수 있어?)

W: I'll write it down for you, then. (그럼, 너 대신 써줄게.)

이 대화는 뭔가 어색해. '그럼'에 대응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을 고려해서 대화를

만들어 봤어.

M: I don't have enough time to write it down. What should I do?

(내가 그것을 적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W: I'll write it down for you, then. (그럼, 너 대신 써줄게.)

어때? 'What should I do?'가 있음으로써 'then'이 어색하지 않게 된 거야.

27. I recommend you return your book soon.

책을 곧 반납하는 걸 추천해.

해설) 음.. 선별하긴 했는데.. 딱히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선택지네. 어법적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할게. 말이 길어지거든. 쉬어가는 선택지라고 생각해~ㅎㅎ

28. You should've slept more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잠을 더 잤어야 했어.

해설) 9번에서 한 번 다뤘지만 복습할 겸 넣어놨어~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 (근데 안 했다.)'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했다.)'

라는 뜻이야.

29. Sorry. I can't work the night shift.

미안해요. 저는 야간 근무를 할 수 없어요.

해설) 'shift'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볼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단어 아냐?ㅋㅋ 처음 본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단어일 텐데.. 모르겠다구?? 키보드를 잘 봐봐~ 'Shift'키가 있잖아! ㅎㅎ shift를 누르는 이유가 뭐야? 소문자를 대문자로, 또는 숫자를 기호로 바꾸려고 누르는 거잖아. 그래. shift는 '바꾸다', '교대하다'의 뜻이야. 따라서 night shift는 '야간 교대' 즉, '야간 근무'를 말하는 거지. 표현 알아둘 수 있도록~!

30. Definitely. He'll move in with me soon.

확실해요. 그는 곧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들어올 거예요.

해설) move in은 '안으로 움직이다'가 아니라 '이사를 들어오다'라는 뜻이야. 또 참고적으로 moving이라는 형용사는 '움직이는'이라는 뜻 외에 '감동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감동적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 그런건가? 또 덧붙이자면, touching이라는 단어도 '감동적인'이라는 뜻이야. 마음에 손을 댄다는 뜻인가? 감성적이네..ㅎ

잘 하고 있어!! 내일 또 보자~!

Day 4

31. Sure. I'll tell him not to practice late at night.
물론이죠. 제가 그에게 밤늦게 연습하지 말라고 말할게요.

해설) 앞네모인 'Sure.'의 역할은? 바로 전 문장이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

32. That's okay. He won't mind playing the guitar.
괜찮아요. 그는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거예요.

해설) mind는 '~하는 것을 꺼리다'라는 뜻으로 자체로 부정의 의미야. 따라서 won't mind는 긍정의 의미라는 것!

33. You're right. I'd rather take the next flight.
네 말이 맞아. 나는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게 낫겠어.

해설) 앞네모가 You're right. 이니깐 바로 이전의 말은 앞네모 뒤에 오는 말이랑 같다고 유추할 수 있지.

M: 음.. 이 비행기 말고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저렴하네.

W: You're right. I'd rather take the next flight.

이런 식으로 말이야.

34. I'll hand in your paper for you.
내가 널 위해 네 보고서를 제출해 줄게.

해설) hand in은 '제출하다'라는 뜻이야. in은 들어온다는 뜻인데 제출(提出)의 출은 나갈 출(出)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해봤어. hand out과 hand in을 같이 놓고 보자. hand out은 '(숙제나 유인물 따위를) 나눠주다'라는 뜻이야. 나눠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받는 것은 hand in이 되겠지? 나눠준 주체의 입장에서 되돌려 받는 것을, 받은 입장에서 해석하면 '제출하다'가 되니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복잡하다구? 그럼 그냥 외워ㅋㅋㅋ

35. Don't apologize. I'm sure you'll get better soon.

사과하지 마요. 저는 당신이 곧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해설) 바로 이전의 말이 뭐였을까? 원지는 잘 몰라도 '사과'였다는 것은 알 수 있어.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ㅎㅎ 그리고 뒷내용을 보면, 어떤 일을 처음이라 잘 못해서 사과했다고 유추할 수 있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선택지를 보고 앞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면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유형은 틀릴 일이 없어. 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징하게 연습했을 테고.. 혹시 구매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이 유형을 틀린다면 선택지를 가지고 이 연습을 꾸준히 해줘~!

36. Okay. I'll go find another one soon.

좋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곧 찾을게요.

해설) 쉬어가는 타임~!

37. I'd prefer to get them by mail.

저는 그것들을 우편으로 받는 것이 더 좋겠네요.

해설) prefer: ~을 선호하다

38. I'll revise the review right away.

제가 그 서평을 즉시 수정할게요.

해설) revise: 수정하다

39. Don't worry. I will hold the shirt for you.

걱정하지 마세요. 셔츠를 당신(손님)을 위해 가지고 있을게요.

해설) 이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 매장 직원과 손님의 대화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아주 잘했어. (못했더라도 의기소침해 하지는 마ㅋㅋ) hold는 '잡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I will hold the shirt for you.'는 옷을 잡고 있겠다는 말일까? 아니겠지. 가지고 있겠다는 말, 더 정확하게는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이지. 사전적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속뜻!

40. I'm sorry, but we don't sell products on credit.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외상으로 물건들을 팔지 않습니다.

해설) on credit은 너희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거야. credit은 '신용'이라는 뜻이 있어. 따라서 sell products on credit은 '신용 위에 물건을 팔다'가 되고 의역하면 '외상으로 팔다'가 되는 거야. 외상이란 게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 (다음에 값을 걸 믿고) 파는 거니깐. 표현 꼭 알아둬~!

이제 이틀 남았네~! 나도 군대 안에서 자투리 시간들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공책에 손으로 쓴 다음,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컴퓨터로 자료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조금만 힘내자! 알겠지? 화이팅!!

Day 5

41. You can visit the lost and found for your wallet.

당신의 지갑을 찾으러 분실물센터에 가실 수 있어요.

해설) 'lost and found'가 분실물 센터라는 뜻이야. lost 랑 found를 따로 생각하면 안돼!

42. I apologize. We don't have anything in your size.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손님 사이즈의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설) 이 선택지를 '우리는 당신의 사이즈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라고 해석하면 안 돼.. 설마.. 없겠지..? 이 자료를 통해서 의역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43. Okay. I'll try my best to be there.

알았어. 나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해설) 'try 소유격 best'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야. to be there의 사전적 의미는 '거기에 존재하도록'이니 의역해서 '갈 수 있도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44. I get seasick whenever I'm on a boat.

저는 배를 탈 때마다 뱃멀미를 해요.

해설) sea(바다) + sick(아픈) = 뱃멀미

45. I taught myself from a book in the library.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독학했어요.

해설) teach oneself은 '자신을 가르치다'라는 뜻이니 '독학하다'라고 의역하면 돼.

46. I don't know how to make things out of paper.

저는 종이로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해설) make A out of B는 'B로 A를 만들다'라는 뜻이야.

47. I'll get along well with my coworkers.

저는 동료들과 잘 지낼 거예요.

해설) get along well with는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48. I'll find out after the training session ends.

저는 연수가 끝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해설) 14번을 잠시 보고 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raining session이 뭔지 몰라도 당황하면 안 돼. 'the' training session이니 이미 앞에 언급됐을 거고 그냥 A라고 생각하면 돼.

49. I don't think company life will be as easy as I thought.

저는 회사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설) as easy as I thought에서 필요한 부분은 'easy'뿐이야. 그 외에는 그냥 무시해. 즉, 'I don't think company life will be easy.'로 보라는 거지.

50. I have no idea who will be in charge of the department.

저는 누가 부서의 책임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해설) I have no idea =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I don't know로 해석하면 돼. in charge of는 '~의 책임을 맡고 있는', department는 '부서'라는 뜻이야. 참고적으로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인데, 마치 회사의 부서처럼 매장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

오늘 진도는 빨리 끝났지? 그냥 간단 간단하게 단어만 짚었던 선택지들이 많아서 그래 ㅎㅎ 지 칠까봐 하루쯤은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 봤어!

Day 6

51. That's amazing. I guess they're safer than I thought.

그거 놀라운데. 그것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해설) 49번과 마찬가지로 safer than I thought에서 중요한 건 'safe'야.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52. I agree. Traffic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나도 동의해. 교통 법규는 강화되어야 해.

해설) 자, 이쯤 되면 I agree를 보고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올지 알 수 있어야해. I agree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이고 상대방의 의견은 뒤에 나오는 Traffic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과 같겠지.

53. How about giving your old stuff to a charity?

네 오래된 물건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게 어떠니?

해설) How about ~, What about~ 이 표현은 자주 쓰여. '~하는게 어때'라는 뜻이지.

54. I'm really proud that I got a promotion.

나는 승진한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워.

해설) 선택지 자체는 딱히 중요한 게 없는데. promotion이 다의어라서 선택해봤어. promotion은 '승진'이외에도 '홍보(활동)'이라는 뜻도 있어.

55. The cake I ordered will be here in time.

내가 주문한 케이크가 제 시간에 올 거예요.

해설) in time은 '시간 안에' 즉, '제 시간에'라는 뜻이야.

56. I think it's worth trying for our son, though.

그렇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설) 16번에서 배웠지만 복습해 보자. worth ~ing는 '~ 할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이야. ~ing 대신 N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문장 끝에 오는 though는 접속사로 쓰이는 (Al)though와는 쓰임이 달라. 접속사는 '비록 ~일 지라도'라는 뜻이지만 문장 끝에서는 '그래도..', '그렇지만..'이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기 위해 쓰여.

57. Please tell me what the cake I made tastes like.

내가 만든 케이크 맛이 어떤지 말해 주세요.

해설) 가끔 명사가 연속(the cake + I)으로 나와서 해석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뒤의 명사와 동사에 괄호를 쳐봐. what the cake (I made) tastes like. 이렇게 말아야. 그리고 괄호를 빼고 해석을 하면 돼. '케이크 맛이 어떤지'라고 해석할 수 있지.그 다음에 괄호 친 부분을 추가하면 '(내가 만든) 케이크 맛이 어떤지' 이렇게 되지. 쉽지??

58. I forgot the due date of my book review.

나는 내 독후감 마감일을 잊어버렸어.

해설) 3번에서 submission date, deadline을 언급했었어. 여기에 due date를 추가하면 돼~

59. I keep in touch with old friends in my previous school.

저는 이전 학교의 옛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요.

해설) keep in touch with은 '~와 연락을 하며 지내다.'라는 뜻이야.

60. I'd like you to give me some advice about the field trip.

현장학습에 관해 조언을 좀 주셨으면 해요.

해설) I'd like you to는 '당신이 ~을 해주셨으면 해요.'라는 뜻이야.

자, 이제 내일이면 끝나!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내일 하루만 더 힘내자! 파이팅!
내일은 8개밖에 안 돼! ㅎㅎ

Day 7

61. Why don't you buy a flower basket for your mother?

네 어머니께 꽃바구니를 사 드리는 게 어때?

해설) why don't you는 what about, how about과 마찬가지로 '~하는 게 어때'라는 뜻이야.

62. Yeah. I heard it took a whole year to complete it.

그래. 그걸 완성하는 데 꼬박 일 년이 걸렸다고 들었어.

해설) It take 기간: (기간 만큼) 시간이 걸리다.

63. Right. I envy your daughter for having a father like you.

맞아. 당신 같은 아빠를 둔 따님이 부럽네요.

for을 '~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당신 같은 아빠를 가지기 위해 당신의 딸을 질투해요.

?_?

여기서 for은 '이유'를 나타내. 여기서는 질투의 이유를 나타내지.

저는 당신의 딸이 당신 같은 아빠를 둔 게 질투가 나요.

근데 envy를 '질투하다'라고 해석하니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 그래서 '부럽다'로 의역을 하면 '당신 같은 아빠를 둔 딸이 부럽네요.'가 되지.

64. Not at all. I'm pretty sure it won't last for a week.

전혀요. 일주일도 안돼서 없어질 거라 확신해요.

해설) last는 형용사로 '마지막'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지속되다'라는 뜻이야. 꼭 알아둬야 할 어휘지. '이 배터리는 3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This battery lasts 3 hours.'로 표현하면 돼. 선택지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지 않을 거다.' 즉,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질 거다.'라는 뜻이야.

65. I have no idea why the presentation schedule was changed.

저는 그 발표 스케줄이 왜 바뀌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해설) 50번과 마찬가지로 I have no idea를 I don't know로 해석하면 돼.

66. Sorry, but I'm too busy to volunteer at the bazaar.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바빠서 바자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없어요.

해설) too busy to V는 '너무 바빠서 V 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간혹, 'V하느라 바쁘다'라고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구. 노파심에 한 번 다뤄봤어.

67. It'll be nice of you to ask other teachers for participation.

다른 선생님들에게 참여를 구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해설) It's kind of you to help me. 저를 도와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는 뜻이야.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다른 선생님들에게 참가하는 것을 요청해주시면 아주 nice할 거예요.'라는 뜻이지. 의역하면, '~해 주세요.'지 뭐..

68. It's impressive that you keep challenging yourself.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에 감명 받았어요.

해설) 너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라 마지막 선택지로 뽑았어. 정말 수고 많았어!